

# CROSSROAD

일본 동경에서 유정훈/김신혜 선교사 기도편지

## 크리스마스 기타 라이브

지난 12월에 크리스마스 기타 라이브를 했습니다. 이타바시 역 앞에서 기타 연주와 전단지 배포를 하며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에게 전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일본인에게 복음에 가장 마음이 열리기 쉬운 때입니다. 이 시기에 자연스럽게 교회에 연결이 되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며 신뢰관계를 쌓아갑니다. 일본은 더 많은 복음의 씨를 심어야 하지만 때가 되면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지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들과 각양은사를 가진 영혼들이 연결되어 다양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크리스마스 감사예배

12월 24일에 크리스마스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악기연주를 하는 성도들이 다 함께 특별연주를 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받은 은사를 살려서 쓰임 받는 성도들의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예배후에는 각자 정성껏 만들어 온 음식으로 애찬을 나누며 한 해를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며 일본선교에 뜨겁게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 원단금식 기도회

12월 27-30일에는 성도들과 함께 원단 금식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3박 4일간의 금식을 통해 한해를 감사함으로 보내며 소망 가운데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더 넓은 장소에서 예배드리기를 기도합니다. 크기는 40평, 4층 건물로 철근 콘크리트로 20년 이내에 지어진 건물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장소인 이타바시 1-2정목에 예배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예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18년은 예레미야 33:3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요시즈형제는 현재 와세다대학 2학년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캠퍼스전도를 통해 알게 되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성경공부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일본인 청년답게 매우 예의바르고 성실한 형제입니다. 말씀에 관심이 많아 예배에도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요시즈형제가 세례를 받고 캠퍼스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1월 신년회는 함께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식, 일본식, 한국식 만두를 만들며 함께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신년이지만 타국에서 외로웠던 중국인 한국인 성도들과 동경에 사는 일본인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며 함께 떡을 때는 시간은 국적을 넘어 그리스도안에서 한 가족이었습니다.



### 가족소식

늘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월에는 동경에도 눈이 많이 왔습니다. 아이들은 58년만에 가장 많이 내린 눈을 보고 기뻐하며 신나게 학교를 갔습니다. 영준, 지인, 수아는 항상 기도해 주시는 후원자님들 덕분에 영육간에 건강하고 감사하며 자라고 있습니다.



일본 동경에서 유정훈/김신혜선교사